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중국, 국무원, 시진핑, 식품, 안전, 감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중국, 국무원, 시진핑, 식품, 안전, 감독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10. 4
중국, 불량식품 철퇴

2017. 1. 4
시진핑, “중국인의
허끝 안전을 보장해야”

2017. 4. 17
엔타이, 칭다오, 웨이하이 식품
안전 시범도시로 선정돼



핵심이슈
도출

“中 국무원, ‘2017년 식품안전 중점사업계획’ 발표”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中 국무원, ‘2017년 식품안전 중점사업계획’ 발표

4월 14일, 중국 국무원이 ‘2017년 식품안전 중점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2017년 식품안전 중점사업계획’은 원천, 프로세스, 리스크 관리 감독을 주요 내용으로 삼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 안전법 제정 및 식품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식품 감독관, 식품생산 기업의 책임자 및 종사자는 식품안전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둘째, 식품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식품 안전 표준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한다. 특히, 중금속 오염, 유기오염물질 및 특수 식품의 국가 표준 및 검사 방법을 우선적으로 개정한다. 셋째, 식품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농업 표준화를 촉진하고 유기농 식품의 지역 표기를 시행한다. 넷째,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엄격히 처벌한다. 가령, 첨가제와 농약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가짜 식품을 제조 혹은 판매한 경우, 해당인은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적사항도 공개된다. 이 외에도 농업 생산 환경 위생 수준 향상, 원천 관리 시행, 식품 안전을 감독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여론 형성 등이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품안전의 ‘네 개의 가장 엄격한 사안(四个最严)’으로 가장 엄격한 표준, 감독, 처벌, 문책을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식품안전 중점사업계획’에는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네 개의 가장 엄격한 사안’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높아진 의식과 실행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식품 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최근 강화된 중국의 식품 안전 제도를 고려하여, 중국에 수출을 하는 한국의 기업도 제품의 위생, 오염, 첨가물 등 안전 문제에 대해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녹색, 유기농 식품의 경우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받아 이로 인한 통관 거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식품 안전 규제 강화와 사드로 인한 한국 제품에 대한 반감 정서가 더해져 한국 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식품 안전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및 각 성(省)의 실행 지침들을 취합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